

與 '50억 클럽'에 '대장동 국힘 5적' 역공

“국민의힘이 자백한 50억 클럽 신속 수사 촉구” 이재명측 “모두 박근혜 정부때 중용된 인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화천대우 '50억 클럽'과 관련해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나란히 공개된 인사들의 면면이 국민의힘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하권 게이트'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자백한 50억 클럽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화천대우-국민의힘 게이트'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몰염치한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0억 클럽에 대해 “민주당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도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과연 누가 이 지사의 측근입니까. 여권 인사를 봤다는 것은 대체 누구를 봤다는 말입니까”라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 캠프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로,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이라며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지목된 인사들의 면면과 관련,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곽상도), 2014년 대법관(권순일), 2015년 검찰총장(김수남), 2016년 특별검사(박영수), 2016년 민정수석(최재경) 등으로 임명된 것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우 사태는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돈을 주고받은 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인”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내놓은 '대장동 국힘 오적'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묻지마 식 폭로로 국민의힘이 일관하고 있다”며 “제보가 맞더라도

국민의힘과 관련한 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 일단 의심은 가지게 된다. (당사자들이) 너무 황당하지 바로 입장 발표를 했다”며 “그쪽에서 소설을 쓰고 상상력을 동원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50억까지는 아니어도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에게도 돈이 갔다는 언급이 있다”며 “다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50억 그룹’ 명단보는 금융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화천대우 관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18·20일 경기도 국감 예정대로 치른다

이달말 지사직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실상 예약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까지 마친 뒤 이달 말께 지사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6일 캠프 일일 브리핑에서 “국감에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감 전 경기지사 사퇴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이 ‘지사 찬스’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퇴 압박을 가할 때에도 “사퇴하는 것이 더 무책임한 일”이라며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바 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오는 18일(행안위)과 20일(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

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감을 뒤덮은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가까운 야당의 공세에 예상되는 만큼 직접 방어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회피할 경우 야당으로부터 ‘검증이 두려워 줄행랑친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지사는 자료 검토 등 국감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을 마친 이후에는 ‘사퇴 시계’가 빨라질 공산이 크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사로서의 의무만 있었다면, 앞으로는 후보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있지 않느냐”며 “아직 후보 선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국감을 마치면 사퇴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대선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다만 기한을 채우면 약 50일 가까이 지사직만 유지하는 만큼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감 직후인 이달 말, 늦어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5일 이전에 사퇴해 선제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것이 낫다는 게 캠프의 판단이다.

캠프에서는 국감 이후 정국회에서의 여의도와외의 접촉면을 늘려 입법활동을 통해 ‘이재명식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캠프에서는 중요한 도정을 마무리한 뒤 도민의 양해를 구하는 등 사퇴의 명분을 확보하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전승공예품 공공기관 의무 구매 필요”

이병훈 국회의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승공예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통기술 전승공예품의 전체 판매액은 1억 5000여만원으로,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한 해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되어 민족의 전통과 얼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공예, 전통기술 보유자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공예 등 전통기술 보유자의 경우는 공예품을 만들어도 홍보, 유통체계 미비로 인하여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한 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공예품 판매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올해는 8월까지 판매액이 고작 6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통기술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68명, 전승교육사와 이수자를 모두 합하면 781명으로, 결국 전승자 1인당 판매액이 평균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유자들에게 평생 전통문화 계승에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생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전승공예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항만투자 불균형, 체선율 악화·해상교통 위협

주철현 국회의원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 탓에 항만 체선율과 물동량 감소 등 해상교통 안전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낙포·사포·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가항만인 부산항은 0.28%, 울산항은 1.75%, 인천항 0.75%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가 20~40배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다.

실각한 항만 체선율은 정부의 항만투자에 반비례하고 있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서 여수광양항 투자액은 부산항(4조 2880억원)의 25%, 인천항(1조 7890억원)의 61%, 그리고 울산항(1조 7990억원)의 60%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불균형은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정부의 제



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서도 여수광양항 투자는 부산항 투자액 5조 2420억원의 40%에 불과하다. 정부의 투자 불균형에 이어 지역 내에서도 투자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는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 이후 지난 9년 동안 전체 투자사업비 1714억원 중 10%인 184억원만 투자되는 데 그쳤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와 지역 내 관련 기관의 항만투자 불균형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 악화는 물론 선박의 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물선 체선 해소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부두 증설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2차경선 당원투표율 50% 넘나

국민의힘은 6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해 오는 8일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진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당원 투표율이다. 지난 6·11 전당대회 당시 당원 투표율이 45.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경선에서 이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보다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선에서의 당원 투표율은 다시금 최고치를 경

신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50%를 돌파한다면 흥행 면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50%를 넘어 60%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6·11 전대에 참여한 기존 당원 28만 명 외에 8월 말까지 당비를 내고 2차 컷오프에 새로 참여하는 10만명의 표심이다. 적극적으로 당원 배가운동을 벌인 이준석 체제에서 온라인으로 당원이 된 20~40대가 많다. 20~40대 당원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쿠팡 광주 물류센터 오픈! 계약직 사원 모집

쿠팡 광주 물류센터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 시간	주간 : 09:00 ~ 18:00 야간 : 19:00 ~ 04:00 주 5일 근무 (주 2회 휴무)
급여 조건	주간 : 192만 + @ 야간 : 240만 + @ 연장, 특근 발생 시 추가 지급
통근 버스	광주 전 지역 운행
복리 후생	퇴직금, 연차, 단체상해보험, 명절 선물, 경조 지원, 식사제공
업무	물류(입고, 출고, 재고) 지게차/히브(분류, 상하차)
지원 자격	성별 및 학력 무관 성년인 자 [단, 정년(60세) 미만인 자] 초보 가능, 주부 가능, 통만 입사 가능

문자 or 전화지원 : 010-9664-1299
광주센터/희망 근무조/성함/생년/전화번호/근무가능기간
예시) 광주센터/주간/홍길동/1970/010-1234-5678/3개월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